

잊혀진 이상향을 찾아서

자유기고가 김춘겸

《유토피아(Utopia)》는 영국의 정치가 이고 인문주의자인 토머스 모어(T. More :1478 ~1535)가 쓴 가공견문기(架空見聞記)이다. 원래는 라틴어로 썼으며, 1516년에 간행되었다. 저자가 히스토디아라는 선원(船員)으로부터 이상국(理想國:Utopia)의 제도와 풍속을 들었다는 체제로 이상사회를 묘사하였는데, 간접적으로 당시의 유럽 특히 영국의 실제의 사회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공화국에서는 전지민이 교대로 농경(農耕)에 종사하고, 노동시간은 6시간, 여가(餘暇)는 교양시간으로 돌리고, 필요한 물건은 시장의 창고로부터 마음대로 가져오면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이 부정(否定)되고 처음부터 공산제(共產制)로 일관(一貫)된다. 그 내용은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의 정신을 반영하여 종교적 관용(寬容)· 평화주의· 남녀교육의 평등을 논설하고 있다. 근대소설의 새 싹으로

도 보이며, 사회사상사(社會思想史:history of social thoughts)에서는 고전(古典)으로 평가 된다.

이 저서는 저자의 사망 후인 1551년에 영역(英譯)이 간행되었다. 또한 제명(題名)인 ‘유토피아’는 원래 그리스어에 유대하는 <아무데도 없는 곳>(not place → nowhere)이란 의미였으나 이 작품을 계기로 이상향(理想鄉)의 의미가 새로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를 상상하여 문학상에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유토피아 문학(Utopia 文學)이다. 한 방에서 병명을 몰라서 고칠 수 없는 병을 이르는 말로 무하지증(無何之症)이 있다. 유토피아는 그리스 말로는 소위 무하유향(無何有鄉)을 의미한다. 오랜 것으로는 플라톤의 《이상국가》, 플루타코스(Plutarchos)의 《영웅전》과 성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신의 나라에로》,

그리고 허균의 《율도국》 등은 그 유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의 모어(T.More)가 처음으로 명확히 유토피아라는 이름 아래 이상 국가를 그렸으며, 그 후 그의 영향하에 많은 유토피아문학이 다투어 쓰여졌다. 철학자 베이컨(F.Bacon)의 《뉴애틀랜티스(New Atlantis)》도 그중의 하나이며, 더욱 새로운 것은 러스킨(J.Ruskin)·모리스(W.Morris) 버틀러(S.Butler) 등이 그들이 각각의 견지에서 쓴 작품속에서 현실의 세상에 이상향을 가미시켜 대립시키고 있다.

유토피아사상(Utopia 思想)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더 좋은 상태로 환경(環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원천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 꼭 맞는 상대적인 욕구외에도 인간의 내부로는 지복(至福)과 지선적(至善的) 생활에의 면면한 동경이 불가피하게 내재하고 있으면, 시간의 추이(推移)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기한 표현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동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되었고, 처음에는 먼저 신화라든가 전설속에서 형상화(形象化)가 시도되었다. 가령, 중국의 도원향(桃源鄉)이라든가 봉래국(蓬萊國), 그리스의 헤스페리데스

(Hesperides)의 동산, 로마의 엘리시온(Elysion), 이스라엘의 에덴동산, 북유럽의 아스가르드(Asgardh), 혹은 《리그베다(Rigveda)》, 《아베스타(Avesta)》, 《코란》과 《길가메시(Gilgamesh) 서사시(敍事詩)》 등의 경전(經典)이 있다. 그리고 또 종교시에 전해지는 천국이나 낙원이라는 등의 서술은 각기 민족의 원망(願望:desire)의 구체적인 영상(映像)으로 결정(結晶)된 것이다. 그렇지만 글자를 갖고 있지 못한 현존 미개인이란도 낙토(樂土)의 신앙을 소홀히 하는 종족은 이 지구상에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발전은 정동성(情動性)에 대해서 지적인 요소가 우월해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사고가 고도화 되어가고 언어 표현의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적형상(知的形象)을 만들어 내어 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과세계(娑婆世界)를 뛰어넘어 이상세계를 엿보는 인간의 원망상(願望像)도 부단히 변화해 갔다.

사상사적(思想史的)으로 보면 처음에는 신화(神話)로부터 시발하여 전성(轉成)해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유토피아라고하는 말은 영국의 르네상스기(期)의 학자인 모어

(T.More)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생성되어 유래한다고 전술한 바 있다. 이것은 그리스어의 부정사(不定詞) 우(ou)와 장소를 표시하는 명사 토포스(topos)를 짜 맞추어 가상(假想)의 섬나라에 지어준 모어가 만들어진 조어(造語)인데, 라틴어화되어서 지금은 널리 유토피아(Utopia)라고 부르게 되었다.

모어의 '유토피아'에는 당시 잉글랜드(England)라는 대조적인 하나의 이상국의 모습이 사회생활의 세미(細微)한 여러 가지 점까지 여실히 묘사되었다. 그리하여 그 기술(記述)은 그대로 영국의 권력계급에 대한 통렬한 풍자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라틴어로 된 원저(原著)는 당시의 교양자층(教養者層)의 마음을 즉시 빼앗았다. 그 후 이탈리아어역(語譯)·독일어역·영어역이 계속해서 출판되게 됨에 이르러, 독자의 층(層)은 민중 사이에까지 깊숙히 뻗혀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후 수세기를 즐기치게 거친 오늘날 명실공히 세계적인 고전(古典)속에 꼽혀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이 책의 의의(意義)는 고립한 현상적(現象的)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상사(思想史)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표현형식을 의식적으로 낳아 놓은 사실에 있다. 결국에 가서 이른바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관념형태의 이정표적인 기원(起源)으로 된 점에 잠기어 있다.

모어 후 서술의 방식이라든가 내용의 구성을 모방하거나, 적어도 모어의 저서에서 자극을 받아서, 이상으로 하는 사회의 형태나 상태라든가 국가의 기구(機構)를 묘사하는 저작이 계속적으로 흘러 나왔다. 이윽고 유럽의 사상사를 통해서 유니크한 독자적인 하나의 계보(系譜)를 엮어내기에 이르렀다.

이 계보는 문학·종교·철학·정치학·심리학·윤리학·사회학 등을 포함하는 지식영역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한 일선(一線)을 그어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나 모어의 저작을 범례(範例)로 한다면, 어떠한 표현을 취하든 간에 그 시대의 기존(既存)질서에 비판을 가하였다. 그리고는 그것과는 반대적인 가치관(觀)에 기초를 두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초안이건 구체상(像)이건 막론하고 묘술(描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유토피아사상의 엄연한 기준(規準)으로서 설정(設定)되어 우뚝 자리잡게 되었다.

한마디로 유토피아는 인간의 원망(願望)이 결정화(結晶化)한 형상이다. 우리가 사상사(史) 속에서 주목하는 유토피아 작품은 개인적인 관념이건 집단적인 표상(表象)이건 간에 단순한 몽상상(夢想像)

은 아니고,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도를 포함한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의 끊임 없는 추구의 대상으로서의 이상상(理想像)이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심성(心性)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자기만족적 백일몽(白日夢)이 결코 아니고, 올바른 것 그리고 선한 것에의 동경으로부터 생기는 일종의 계시(啓示)와 같은 것이다. 아니면 종교라든가 이념(理念)과 신념, 신앙 곧 철학이라든가 정치와 같은 범규범(法規範)의 세계에 있어서의 실현에 토대한 기대감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한 착상(着想)이라든가 환상이 아니다. 일찌기 실제로 발생(發生)한 것, 지금 어딘가에서 실재(實在)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 장차 반드시 실현될 성질의 것, 그런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촉박성(促迫性)을 지닌 유토피아적인 지적 형상(知的形象)은 모어 전시대의 정신사(精神史) 속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발견된다.

신화가 유토피아사상의 원형인 것은 앞에서 말한바 그대로이다. 그렇지만 고대 유태교에 있어서의 종말론적인 메시아니즘(Messianism)의 발전은 이 민족의 신화적 전승(傳承)이 적극적인 미래상(像)으로서의 유토피아로 변질해 가는 과정을

그대로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쿠드랑공동체로부터 원시교회에 이르는 원시기독교의 메시아사상에까지 금(巨)하였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계시문학을 거쳐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 이르러서 이른바 신(神)의 나라의 이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쌓았다.

이어서 거기서부터 중세 기독교의 저류(底流)인 신비주의 사조를 꿰뚫고 르네상스기(期)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계속 일어난 농민전쟁의 지도 이념인 밀레니움사상에 핵심을 부여했다. 한편,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화는 철학에 국한되어서 정신사(史)의 발전에 새로운 지적(知的)인 단계가 계획되기에 이르렀다.

그리스의 관념주의 철학자로 소크라테스(Socrates)의 제자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스승인 플라톤(Platon : 427 ~ 327B.C)의 『폴리데이아』는 이데아(idea)를 실현하는 이상국가(理想國家)의 구상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데아는 보임새·형(形)·생각의 뜻으로 플라톤에 의하여 이념(理念)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크세노폰(Xenophon)이나 그 후의 플루타르코스(Plutarchos)는 실재적(實在的) 인물을 빌어서 그 위정체

(爲政體)를 이상화(理想化)해서 묘사하려고 시도했다.

이밖에 희극의 아버지(the Father of Comedy)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희극작가 아티스토파네스(Aristophanes: 448~380 B.C.) 작품에서도 유토피아적인 착상(着想)이 엿보인다. 아테네(Athenae)나 헬레니즘(Hellenism)상에 특유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의 테두리 밖에 안정(安定)하는 정태적(情態的) 유토피아의 형(型)>은 중세를 훨씬 뛰어 넘어서 오히려 르네상스에 직속하고 있다.

모어는 분명히 플라톤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어에게서 배운 불붙은 르네상스의 여러 저작은 좌절된 혁명으로부터 타다 남은 신성국가(神聖國家)의 허상(虛像)일 수 있다. 캄파넬라(Campanella)의 《태양의 수도》를 제외하면, 라블레(Rabelais)도 안드레아(Andrea)도 베이컨(Bacon)도 바튼(Barton)도, 달하자면 선량(選良)계급(elite: choice people)을 위한 낙원을 상상하고 있는 것에 멈추었다.

이러한 경향은 17~18세기에 걸쳐 여행기적(旅行記的)인 형태를 취하는 유토피아문학으로서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이스라엘과 그리스에서 근원하는 2개의 성격이 결부되어서, 역사현실에 근거한 구

상력(構想力)을 발휘하게 됐을 때, 유토피아사상은 드디어 사회변혁의 능동적인 계기로서 건설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근대의 시민혁명(市民革命)의 전야에 들끓었다. 일명 부르주와(bourgeois)혁명이라고도 하는 시민혁명은 부르주와지(bourgeoisie 중간계급)가 주체가 되어 봉건제를 넘어뜨리고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세운 혁명이다. 그리하여 가령 17세기의 영국에서는 하링턴(Harington) 윈스탄리(Winstanley) 밀턴(Milton) 등이 출현하였다. 또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루소(Rousseau) 모렐티(Morelly), 디드로(Diderot) 볼테르(Voltaire) 등의 저작에는 구체도의 결함을 찢러 공격하고, 이를 비난하여 새로운 정치기구나 법조직 등이 도덕체계를 제시한다는 내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실려 있다.

이들 저작의 어떤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싹이 될만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구상은 마치 질풍노도와 같이 근대혁명의 수행자(修行者)들의 기대를 훨씬 넘는 선까지 진출했다. 사실, 서민사회가 정말로 이 땅에 나타나자, 그것을 밀받침하는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2가지 양태의 태도가 유토피아사상의 전개방향을 둘로 나누었

다.

하나는 넓은 뜻으로서의 사회주의 사회의 설계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중엽에 일련의 사상가들을 일괄해서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Engels)가 비판적인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른 사람들 중에서 그 전형적(典型的)인 예를 찾아 보게 된다.

마르크스(Marx)의 사회주의에 대해 상시몽 등 그 이전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공상적 사회주의(空想的社會主義)가 있었다. 즉 상시몽(C.d.Saint-Simon) 푸리에(F.M.C.Fourier) 카베(E.Cabet) 등의 동상가라든가 오웬(R.Owen)과 바브프(Babeuf) 등의 실천운동가가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페쿠르(Pecqueur)·블랑(Blanc)·블랑키(Blanqui) 등의 혁명가도 포함하여도 무난할 것이다. 또 다른 계보(系譜)는 19세기의 중엽부터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르면서 발전해온 기계문명에 반응하는 성격의 유토피아적인 것이다. 이것은 다시 2개의 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18세기 이래의 이른바 진보의 관념의 전개에 따르고, 산업혁명의 성과를 긍정하면서 현대문명의 끝없는 결실을 꿈꾸는 것이다. 허드슨(W.H.Hudson)이나 하웰즈(W.D.Howells) 등의 작품은 이 계

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작가도 기계문명에 대해 단전(萬全)의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는 아니고,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도 언급했다. 또 바틀러(S.Butler)는 풍자적으로, 러스킨(Ruskin)이나 모리스(Morris)는 회고적(懷古的)으로 기계(機械)가 거의 다 끊어져 없어진 수공업사회에 유토피아를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태도는 뭐니뭐니해도 웰즈(H.G.Wells :1866 ~1946)서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심수편의 유토피아적 소설과 에세이를 쓰고 또 논작(論作)을 발표했다. 그런데 후기의 작품에서는 기술(技術)의 발전에 대해서 다분히 부정적(否定的)인 태도를 취하게 됐다.

제1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제도적 모순을 폭로함과 동시에 전세기말(前世紀末)에 이미 환영화(幻影化)하고 있었던 소위 진보의 관념을 단번에 허물어 뜨렸다. 그리고는 서구문화의 몰락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넣었다.

이러한 정신적 풍토속에서부터 주로 기계문명과 그것을 성립시키는 자본주의적인 사회조직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관념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逆) 유토피아 혹은 반(反) 유토피아적인 사상을 묘사한 작품이 속속 출현하게 되었다.

기술표준가족

대표적인 작가는 에렌부르크(I.G. Erenburg) 헉슬리(Huxley) 오웰· 게오르규(C.V.Gheorghiu) 등을 들 수 있다. 게오르규는 루마니아 출신 작가이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프랑스에서 줄곧 살고 있었다. 24시의 다음은 새로 1시일 것을 일컬어 '이미 지난', '벌써 뒤늦은' 등 절망의 뜻으로 쓰이는 소설 《25시》(The 25TH Hour)를 발표했다. 이 소설 제명에서 유래하여 부조리의 시대에 전개되는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과학적 공상으로 상식을 초월한 세계를

그린 소설이 바로 공상과학소설, 에스에프(SF)이다. 현대에 와서 남녀노소사이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공상과학소설은 문학적 유토피아의 비속화(卑俗化)된 지류(支流)라고 간주할 수가 있다.

이상은 실제로는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물의 가장 완전한 상태나 모습을 이른다. 또 우리 인류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마음에 그리며 추구하는 지상 최대·최상·최선의 목표이다. 우리 인간이 이상향을 추구하는 마음과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32)

